

윤리와 사상 정답

| | | | | | | | | | |
|----|---|----|---|----|---|----|---|----|---|
| 1 | ③ | 2 | ③ | 3 | ④ | 4 | ④ | 5 | ⑤ |
| 6 | ② | 7 | ② | 8 | ④ | 9 | ② | 10 | ① |
| 11 | ④ | 12 | ⑤ | 13 | ③ | 14 | ③ | 15 | ③ |
| 16 | ① | 17 | ⑤ | 18 | ① | 19 | ② | 20 | ② |

해설

1.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대화 속 스승은 장자이다. 장자는 시비 선악을 분별하는 상대적 인식과 외물(外物)에 얽매 이는 삶에서 벗어나 자연의 도(道)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도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이나 사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출제의도] 혜능과 지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혜능, 을은 지눌이다. 혜능은 자신의 본성과 부처의 본성이 본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혜능은 지식 공부와 점진적 수행을 거치지 않고도 단박에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눌은 단박에 깨달은 뒤에도 습기(習氣)를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타고난 사단(四端)을 확충하는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여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신과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름으로써 어떠한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자아가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존재할 뿐이며 독립된 자아나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삼독(三毒) 즉,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여 고통이 없는 경지인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왕수인과 주희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없으므로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개별 사물에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희는 만물에 이치[理]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고,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앎을 극진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두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여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存天理去人欲]고 보았다.

7.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영지의 기호(嗜好)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단(四端)을 확충함으로써 사덕(四德)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공자와 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는 형벌보다는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해야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의를 실현하기 위해 통치자는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해주어야 한다[修己而安人]고 주장하였다. 노자는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인위(人爲)라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보고, 백성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무위(無爲)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하였고, 신의 존재를 이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완전한 행복의 실현은 신의 은총을 통해 가능하며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 각 개인의 감각적 경험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 진리관을 비판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며,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덕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덕을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분하고, 품성적 덕의 형성을 위해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동도서기론과 동학 비교하기

같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선, 을은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이다. 동도서기론은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학은 경천사상을 토대로 유·불·도 사상을 융합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신이 곧 자연이며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내재적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이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순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악한 본성을 지닌 백성을 선하게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외적 규범인 예(禮)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예를 도덕 생활과 통치의 표준으로 삼아 사회와 국가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며, 모든 쾌락은 오직 양적 차이만 있음을 주장하였다.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다양한 쾌락을 경험한 사람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질적으로 높은 고상한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원효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청정한 본래의 마음인 진여(眞如)와 현실의 마음인 생멸(生滅)의 두 측면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일심(一心)을 바탕으로 모든 이원적 대립을 초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각 불교 종파 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흄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행위의 도덕적 선악이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是認)과 부인(否認)의 감정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고, 각자에게 걸맞은 덕을 갖추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이황(李滉), 을은 이이(李珥)이다.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理氣互發)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으로 보았다. 이이는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라고 주장하며,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따른 행위만을 도덕적인 행위로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에 따른 행위가 우연히 의무와 일치했더라도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